

전북대 화학공학부, 세계 112위... 국내 3위 랭크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역량 입증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학부장 서형기)가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U.S. News가 발표한 '2025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에서 고려대와 연세대에 이어 국내 전체 대학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는 112위로, 지난해 134위보다 순위가 상승하며 세계 100위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평가는 세계 2,3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세계 및 지역 연구 평판도, 학술논문 및 저서 수, 상위 10% 및 1% 인용 논문 수 등 총 13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학문 분야별 연구 영향력을 평가했다. 지난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U.S. News 발표
'2025 베스트 글로벌 유니버시티 랭킹' 서
상위 1% 논문 비율 세계 38위로 가장 높아

평가에서 20개 학문 분야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 중 화학공학부가 세계 112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논문 중 상위 1% 인용 논문 비율이 세계 38위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 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최우수급 논문을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발표하는 대학 중 하나라는 의미다. 상위 10% 인용 논문 비율은 세계 70위, 정규화된 인용 영향력은 세계 67위로, 화학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북대 화학공학부는 1951년

10월 화학공학과로 출발해, 1985년 신설된 공업화학과의 1994년 통합폐 현재의 화학공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4,5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다양한 대형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하며 국가산업과 지역사회를 이끄는 핵심 화학공학 인재를 양성해 왔다. 서형기 학부장은 "이번 순위는 그간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뤄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화학공학 분야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7일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열린 '이병훈 진화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이병훈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화학 개척자를 기리다

〈전북대 이병훈 명예교수〉

한국진화학회, 올해 첫 '이병훈 진화학상' 제정

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서 첫 시상식 열려

이 명예교수 "후학들의 연구 여정 이정표 되길"

전북대학교 이병훈 명예교수(생명과 화학)의 업적을 기리는 '이병훈 진화학상'이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진화학회는 국내 진화학 연구의 선구자인 이병훈 전북대 명예교수의 학문적 기여를 기념하고,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이 상을 신설했다. 매년 진화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유망한 신진 연구자 1인을 선정한다.

첫 시상식은 지난 17일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열렸다. 제1회 수상자로는 다양한 크기의 소금쟁이 종이 체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적응 행동이 진화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우주 박사가 선정됐다.

이날 첫 시상식에는 이병훈 명예교수가 직접 참석해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수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병훈 명예교수는 "진화생물학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이로움과, 국내에서 이 분야를 개척해 온 자부심을 되새기게 된다"며 "나의 이름으로 제정

된 이 상이 후학들의 연구 여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진화학회는 "국내 진화학 연구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이병훈 진화학상은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데 중요한 기록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병훈 명예교수는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곤충계통분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대 생물과학부 교수로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평생을 헌신하며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생물다양성협회,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학계의 중책을 맡아왔다.

또한 하은생물학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저술상 등을 수상했다.

특히, 평생 수집하고 연구한 '북토기' 관련 논문과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 기증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수학탐험대 활동 성과 공유

전북교육청서 결과보고회... 학생들의 연수 소감 발표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창조나래 5회의실에서 '글로벌수학탐험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수학탐험대'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해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방문, 현지 학생·교수와의 교류,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학의 실용성과 창의적 접근 방식을 경험했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서는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연수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느낀 점을 발표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각자의 탐구 주제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 계획

과 국제적 소통·협업을 통한 자기계발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학생들의 생생한 연수 소감도 발표했다.

김인희 학생은 "미국에서의 연수는 나의 좁았던 가치관을 넓혀주고,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꿔줬다"며 "글로벌수학탐험대를 통해 배운 것은 탁월한 두뇌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와 질문, 도전하는 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민희 학생은 "수학에 대한 태도와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며 "San Jose에서 교수님께 들었던 직업 선택의 세 가지 기준인 즐거움, 유용성, 확신의 신포를 기억하며, 논리력과 유연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로 탐색과 실현 과정에서 더 많은 수학을 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5 SW교육 코딩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김제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2025년 SW교육 코딩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실생활의 문제를 정보과 학적 사고로 분석하고, 팀별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코딩 솔루션을 개발하는 문제해결력 중심의 프로젝트형 캠프다.

이에 캠프에 참가한 36명, 144명의 학생들은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했다.

특히 올해는 오픈북 형태를 도입해

학생들이 다양한 보조 SW나 책자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팀별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 발표를 통해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번 캠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팀(중학교 4팀, 고등학교 3팀)은 오는 10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5년 SW·AI 학생성장 글로벌 캠프(4박 5일)'에 참가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고객지원실

인공지능 통번역기 비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고객지원실 내에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제안된 '다문화 민원인을 위한 통역 및 번역기 서비스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65개 언어를 실시간 음성인식으로 번역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통번역기 도입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및 외국인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민원인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2015년 4,790명에서 2024년 9,010명으로 증가했다.

조철호 총무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친근하고 편안한 고객지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기관 도급·용역·위탁

업무담당자 안전보건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일 미래교육연구원서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의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하고, 담당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급·용역·위탁 시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조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격제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이다.

특히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방법,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다. /장은성 기자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술사에서 늘봄지원실장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수는 △늘봄 인력 채용 실무 연수 △토크 형식의 늘봄학교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정수경 전주 양현초 늘봄지원실장과 박규범 고창교육지원청 늘봄지원실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운영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지난 17~18일 양일간 '2025 유니브스타 글로벌 연합 프로그램' 사전캠프를 운영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한-베 청년 창업 네트워킹 본격화

전북대, '유니브스타 글로벌 연합 프로그램' 사전캠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7~18일 양일간 '2025 유니브스타 글로벌 연합 프로그램' 사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창업지원단(단장 국경수) 주관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우수 창업 인재들이 해외 시장을 이해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청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전캠프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국립군산대, 국립순천대, 부산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전남대, 전주대, 충북대 등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또한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사이공 이노베이션 허브와의 협업을 통해 운영됐다.

캠프에는 각 대학에서 선발된 89명이 참가자 간 네트워킹, 글로벌 시장

에서 활약 중인 청년 창업기업의 사례 공유,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후에는 오는 8월 10~15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현지 시장 조사, 베트남 대학생과의 협업 네트워킹, '유니브스타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등 실전 창업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경수 단장은 "글로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생들이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대는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굴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로교육 강화로 학력 논쟁 돌파” |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제2회 교육포럼

“학력신장은 진로진학지도 강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지난 17일 전주교대 사회관 4층에서 '전북의 학력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주제로 제2회 교육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기초발제를 통해 "단순히 시험성적이나 수능점수가 높아진 것을 학력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단편적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력신장만을 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4+1교육과정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충북교육청 진로진학협의회장을 역임한 김주석 교사와 충북교육청 남정민 장학사는 충북이 수능점수가 전북과 비슷한 상황에서 진로진학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강점을 들었는데,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교육과정편성, 진로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의 공간혁신, 선배의 합격사례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 선택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고 이것이 대입 성과로 나타났



지난 17일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관 4층에서 전북미래연구소 주최 제2회 교육포럼이 열린 가운데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기초발제를 하고 있다.

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현장의 경험을 발표한 전북의 이해영 교사는 1교실 2교사제 형태의 두리교사제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포럼에서는 도내외 각급학교의 학력신장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부모·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회복적 교육정책 발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장은성 기자

유·초 연계 이음교육

운영지원 교원)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유·초 연계 이음교육 운영 지원 교원)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감 및 초등학교 교감 2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연계 및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는 총 118개의 유치원이 유·초 연계 이음교육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유·초 간 교육과정 연계 △교사 간 협력 강화 △현장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인교육대학교 김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의문으로 시작해 감탄으로 승급 다가서는 유·초 이음교육'을 주제로 유·초 연계 이음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유·초 이음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현장 적용 사례, 관리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음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탐색했다. /장은성 기자